



병충해 상습지 일소책 강구

요인별 개선대책 및 경종기준도 설정

농수산부는 병충해발생을 극소화하고 식량의 안정적생산을 이루기 위해 병충해발생 상습지를 요인별로 분석, 그 근원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병충해발생 실습지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발생 상습지에는 관리 책임자를 배치하며 ▲상습지별로 요인별 개선대책과 경종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상습지 일소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행정·지도계통을 통해 발달한 세부실천 요령은 병충해 발생 상습지 관리카드를 도열병은 담적색, 백엽고병은 담황색, 벼잎벌레는 담청색으로 만들어 지도소장은 병충해 발생상황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 군수는 병충해방제 상황을 지도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상습지 개선대책으로는 농촌진흥원 장 책임하에 상습지를 병해충별, 구

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기 검정된 지역은 제외)하고 지도소장은 그 개선대책을 수립, 시장,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여 시장, 군수가 개선대책을 예산 및 비예산사업으로 구분,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별지: 상습지별 분포도>

또 예방위주의 병충해 공동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지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방제단(새마을 영농회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방제하도록 방제기구를 우선 지원해주고 방제시기에 관수용 방제기구도 우선 공급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발생상습지에 기호농약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습지 일소대책위원회』는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위원은 농산과장·건설과장·기술담당관·농협군지부장, 농지개발조합장으로 구성하고 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病虫害發生常習地分布圖

